

‘작가와와의 만남’ 광주 찾은 정호승 시인 인터뷰

“시로 영혼의 배 채우고 노래로恨 달래야지요”



“각박한 세상, 어지러운 삶이 우리들에게서 시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시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7일 광주 원각사(도계 주지 스님)에서 열린 ‘작가와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정호승 시인(59)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먹는 밥처럼 시를 먹어야 영혼의 배가 채워지지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하듯 시를 통해 힘을 얻고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서민의 꿈과 사랑을 노래해온 정 시인은 현재 글쓰기에 전념하면서 시낭송회와 시노래 모임, 강연 등 전국을 돌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0여 년 가까운 시작활동에서 그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노래. 정 시인은 시노래 모임 ‘나팔꽃’에 참여하며 시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나팔꽃’은 시인 김용택·도종환·안도현, 가수 백창우, 김원

아버지 고향 순천...광주와 인연 보편적 언어로 서민의 꿈 담아 안치환·김원중 등 노랫말 인기

중, 김현성, 안치환 등이 모여 만든 시노래 단체다. “시와 노래의 만남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방으로 밀려나던 시가 새롭게 존재 의미를 찾으며 대중을 만나는 작업입니다. 시가 노래의 옷을 입으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도 쉽죠.”

정 시인이 시노래 모임에 힘쓰는 이유이다. 그래서인지 안치환의 ‘인생은 나에게 술잔만 사주지 않았다’를 비롯해 김원중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 정 시인의 많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고 있다.

아버지 고향이 순천이라는 정 시인은 “김현성 등 마음속에 좋아하는 시인들이 광주에 있어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며 “시인·가수 150명 참여한 ‘잘가자 지역감정’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는 우리 삶의 상처를 자양분으로 해 피어난 꽃이라 할 수 있는데 광주는 현대사의 큰 상처를 가져왔기에 많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소중한 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맑게 퍼졌으면 합니다.”

정 시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기, 아름다운 시로 영혼의 안식을 찾고 노래로 한을 달래자”고 제안했다.

정 시인은 경남 하동 출생으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 마디’ 등을 썼으며 정치운동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인은 이날 자신의 작품 가운데 뽑은 시 ‘산산

산산조각

정호승

롭비니에서 사운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사람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적짜채를 꺼내 불었다
그때 늘 부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조각’ 등 10편을 낭송하며 자신의 시 세계와 ‘시를 통한 희망찾기’에 대해 강연했다.

/글=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배우·관객 하나되는 웃음과 감동의 무대

11일~7월 18일 광주소극장축제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들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은 연극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즐겁다.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지역극단들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 12회 광주소극장축제와 같다. 공연 일련지 등 100석 내외의 작은 극장에서 이뤄지는 축제다.

▲학문외과(11~14일·씨디아트홀)
감추고 싶은 병인 치질 치료를 위해 입원한 4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코미극이다. 각 배역이 타고 있는 사연이 웃음과 감동을 주며 다양한 역할로 변신하는 멀티맨의 역할도 눈에 띈다. 이기인씨가 대본을 썼으며 정경아·고난영·양정연·박선영씨 등 배우들의 앙상블이 좋다.

▲도덕적 도둑(26일~7월26일·문예정대)
극단 진달래 피네의 참여작으로 유명 희극작가 다리오 포의 작품이다. 국회의원 집에 숨어들어간 도둑, 불륜관계인 국회의원과 한 여인, 도둑의 아내, 국회의원의 아내가 집안에서 얽히고 설कि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리고 있다. 안정열·김소이·

남궁민씨 등이 출연하며 감화정씨가 연출했다. 한달간 토·일요일 공연한다.

▲How are you!(7월9~11일·공운동예술극장)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연극이다. 머리에 쉬스갈 빈자리에 유재는 ‘벌어놓으세요!’, 세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이 부유층 여자를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서로의 과거를 알아가며 점차 사랑을 느끼게 되는 남녀의 이야기다. 이담금·김현수씨가 주연을 맡았다.

▲플라자 스위트(7월9일~11일·씨디아트홀)
‘닥터’ 등으로 유명한 희극작가 널 사이먼 작품으로 플라자 호텔 719호에 들른 세상의 손님 이야기



‘도덕적 도둑’

다. 결혼 23주년을 맞아 첫남밤을 보냈던 호텔에 다시 찾은 커플, 첫사랑과 호텔에서 재회한 할리우드 제작자, 결혼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호텔을 사용중인 딸과 부모 등 다양한 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설근·김은미·채희영씨 등이 출연한다.

▲그녀들 옥상에 오르다(7월14~18일·공운동일번지)
최근 핫한 사이 꾸준한 작품을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

이미자 ‘노래 50년’ 광주 공연

14일 문예회관 주현미도 출연

‘엘리자의 여왕’ 이미자는 올해로 노래 인생 50년을 맞았다. 지난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한 후 560여장 음반 발매, 2천여곡 발표한 그녀는 살아있는 한국음악사로 불린다.

지난 4월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50년-전설’ 공연을 갖고 또 다른 노래 인생을 다짐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광주 팬들을 만난다. 6월 14일 오후 3시·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미자는 이번 공연에서 ‘심마를 선생님’,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여자의 일상’, ‘서울이여 안녕’ 등 주옥같은 히트곡을 비롯, ‘사의 찬미’, ‘고향여’, ‘황성옛터’ 등 자신이 즐겨부르는 애창곡을 선사한다.

또 25주년부터 기념 공연이



후 5년 단위로 발표한 기념곡인 ‘노래는 나의 인생’ 내 영혼 노래가 되어’를 들려주며 50주년 기념곡 ‘내 삶의 이유있음’을 선사한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특히 이번 광주 공연에는 후배가수 주현미가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다. 티켓 가격 8만8천원~5만1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즈그룹 ‘Delicious’ 초청 화요일예술투대

9일 광주문예회관

광주문예회관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퓨전재즈 그룹 ‘Delicious’를 초청, 화요일 예술투대 행사를 갖는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지난해 5월 창단된 ‘Delicious’는 권은(베이스), 양희범(기타), 문경미(피아노), 드림(송풍우)으로 구성된 4인조 그룹으로 이번 공연에는 오상호(색소폰), 이금경(보컬)씨가 객원으로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부드러운 전자파 악세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첼리스트 요한 함자와 피아니스트 정하은 씨가 함께 출연한다.

빈 예술학교 마스터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공연에서 이씨는 독일의 바흐, 프랑스의 게 데르블루아, 이탈리아의 비발디, 제미니아니와 같은 바로크 시대 곡들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이스라엘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첼리스트 요한 함자와 피아니스트 정하은 씨가 함께 출연한다.

빈 예술학교 마스터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공연에서 이씨는 독일의 바흐, 프랑스의 게 데르블루아, 이탈리아의 비발디, 제미니아니와 같은 바로크 시대 곡들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이스라엘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첼리스트 요한 함자와 피아니스트 정하은 씨가 함께 출연한다.

빈 예술학교 마스터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공연에서 이씨는 독일의 바흐, 프랑스의 게 데르블루아, 이탈리아의 비발디, 제미니아니와 같은 바로크 시대 곡들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이스라엘 심포니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수가 첼로독주회 ▶10일 광주문예회관

이수가 귀국 첼로독주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옛 것, 새 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이씨는 독일의 바흐, 프랑스의 게 데르블루아, 이탈리아의 비발디, 제미니아니와 같은 바로크 시대 곡들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이스라엘 심포니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국민법률경제대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공인중개사 : 김행숙 경매분석사 : 0621351-8240 H.P 010-7203-1100							
구/소지	면적(㎡)	간접가	최저가	구/소지	면적(㎡)	간접가	최저가	구/소지	면적(㎡)	간접가	최저가	구/소지	면적(㎡)	간접가	최저가
광산구	하남동 102 6층7칸	489.9	6천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하남동 102 6층7칸	489.9	6천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하남동 102 6층7칸	489.9	6천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하남동 102 6층7칸	489.9	6천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층8칸	325.5	3천5백